컴퓨터에 대한 맹신과 극복방안

16011940 박보은

사람이 컴퓨터에 대해 맹신을 할 경우,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컴퓨터는 너무 쉽게 조작될 수 있고, 완벽한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이다.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PC는 물론이고, 기업이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는 컴퓨터 역시 해커들 혹은 악성 바이러스에 의해 해킹되기 십상이다. ‘더 플랜’에서도 나왔듯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대한 일에 사용되는 컴퓨터조차도 쉽고 단순하게 조작될 수 있었다. 조작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중들이 소수의 이익집단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. 예를 들어 어떤 법률안을 제정하기 전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고 가정하자. 대다수의 국민이 그 법률안에 대해 찬성을 하였고, 투표 용지에 찬성이라고 적어낸다 하더라도 조작된 프로그램에 의해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. 여기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오직 이 투표 결과를 조작한 소수의 사람들일 것이다.

앞서 이야기한 컴퓨터의 조작 가능성 뿐 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컴퓨터, 인공지능이 제시한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지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. 컴퓨터는 흔히 말하는 도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. 또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, 예를 들어 돈과 같은 것들만 고려하고 수치화 할 수 없는 생명(단순히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닌),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같은 요소들은 판단하는 것에 있어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수 있다. 예를 들어, ‘공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’라는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했을 시에 컴퓨터는 “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을 해고 시키고 기계로 생산하여 생산성을 높여라.”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최고의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. 혹은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공지능은 민간인의 목숨 혹은 다른 건물이나 시설의 문화재적 가치를 무시하고 단순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승리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 할 수 있다.

사실 컴퓨터를 믿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. 하지만 이렇게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컴퓨터에 100% 의존한 상태로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닐까 싶다. 컴퓨터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린 부정할 순 없다. 만약 컴퓨터를 무조건적으로 불신 한다면 우리는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하지 못하고 컴퓨터에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. 이는 엄청난 비효율성을 야기 시킬 수 있다. 우리가 컴퓨터를 바라볼 때의 시각은 맹신과 불신, 극단적인 측면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. 작년 바둑기사 이세돌씨와 알파고의 경기로 인공지능은 대중들에 큰 충격을 주었다. 알파고는 그간의 대결에서 506전 505승 1패를 하였다.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할 때 우린 505승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닌 1패 즉 한번의 실수를 늘 명심해야 한다. 그 누구도 그 한번의 실수가 언제 발생되고 이 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다.

컴퓨터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란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. 컴퓨터가 늘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. 인공지능조차도 무언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들 역시 인간에 의해 축적된 것들이다. 결국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제시한 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을 할 것이고, 이를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단계의 필요성이다. 결정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피해도 인간이 받는다. 때문에 엄격한 검수 과정이 꼭 필요하다.